

사회주의 경제 계산 논쟁 자료

무산자

사회주의 경제 계산 논쟁은 「사회과학과 사회정치학 논총(Archiv fue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제47호(1920)에 실린 L. V. 미제스의 논문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제 계산\(Die Wirtschaftsrechnung im sozialistischen Gemeinwesen\)](#)』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미제스는 생산재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 내에서 생산재 가격의 합리적 계산이 불가능하기에 소비재 가격도 계산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효율적인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이후 동일 주제의 논문 두 편을 더 작성하긴 하였는데, 이 기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24년에 작성된 논문의 번역은 〈지식을만드는지식〉에서 출판한 [《사회주의》 제1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재에 가치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가치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생산재는 자본주의 국가와 무역을 통해 거래되며, 사회주의 국영기업 간의 유통에 있어서도 합리적 배분을 위한 조율 과정이 존재하기에 가치형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환산하기 위해 사회주의 경제기구는 모든 생산물에 드는 생산수단의 마모분—노동수단과 원료의 마모분—과 노동시간을 측정하고, 그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량, 그리고 협동조합적 소유-농민시장의 영역에서 형성된 소비재 가격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각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관리기구—대표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대규모 인력을 가동하여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가장 유명한 문헌은 스탈린이 저술한 [《소련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M. H. 돔의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제8장에서도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룹니다. 두 문헌은 모두 국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1969) 역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미제스의 비판에 대한 O. 랑게의 반박은 왜 다루지 않는냐고 하실 수 있는데, 랑게는 시장‘사회주의자’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비판을 전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W. 카이저의 [『사회주의 경제 계산의 합리성에 관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잊혀진 두 개의 글\(Two Forgotten Articles by Ludwig von Mises on the Rationality of Socialist Economic Calculation\)』](#)에 따르면, 이미 랑게의 미제스 ‘반박’은 사회주의권 대다수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돔과 같은 비사회주의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비판받았습니다.

미제스의 비판은 사회주의 내에서 활용되는 가치법칙 및 생산재의 가치형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제스의 비판은 본래 사회주의 하 경제법칙을 거론하는 선에서 쉽게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미제스의 제자 F. A. 하이에크는 스승의 비판이 본질적인 지점을 다루지 못 하였다고 비판하고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에서 비판을 전면에 제기하기에 이르는데 이를 다루는 문헌이 하이에크의 [《개인주의와 경제질서》](#)입니다.

결국 사회주의 경제 계산 논쟁은 ‘순수’경제학이라는 영역에서 철학적 주제로 넘어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함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의 전반적 계획에 필요한 지식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즉 당대 오스트리아의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견해 즉,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